

#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 글로벌 공급망 주도”

문재인 대통령, 평택 사업장 방문  
K-반도체 전략 논의 관계자 격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을 통해 반도체 생산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은 평택을 방문해 K-반도체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준비된 미래, 반도체 강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소자 기업뿐만 아니

라 실리콘웍스 등 팹리스기업, 네패스 등 패키징 기업, 현대자동차 등 수요기업, 서울대·연세대·반도체협회 등 반도체 관련 대학·유관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는 국내 제조업 투자의 45%,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제1의 산업으로 최대 규모 투자를 통해 한반도 중심에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민간 투자의 적극 이행을 위해 정부는 K-반도체 벨트 조성, 세제·금융·규제 개선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반도체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행사에서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반도체 생태계 강화 연대·협력 협약식’도 진행돼 차량용 반도체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협력,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민관 투자, 첨단장비 클러스터 투자 등 3건의 협약이 체결됐다.

한편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2030년까지 국내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한다.

반도체 제조부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첨단장비, 팹리스(설계) 등을 아우르는 반도체 제조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10년간 5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금융지원·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 이주형 기자

## “北 ICBM으로부터 美 본토 방어는 정책적 최우선순위”

미 국방부 부차관보 군사위 청문회  
“동맹에 확장억제 보장 중요한 요소”

리어노어 토메로 미국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위협에서 미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 정책적 우선순위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 일본 등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 보장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토메로 부차관보는 이날 상원 군사위 소위 청문회에 미리 제출한 서면 자료와 문답에서 이같이 밝

혔다.

그는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는 높은 우선순위에 있다”며 북한 등 불량국가의 계속 커지는 위협에 대항한 본토 방어는 정책 관점에서 계속 최고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이 시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 대륙 어디든 타격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미 본토 도달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6차례 핵실험

과 3차례 ICBM 시험을 했다며 북한의 계속된 핵무기 개발과 전개는 이웃 국가와 미국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맹과 파트너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보장은 지역적, 전략적 안정에서 중요한 요소”라며 “어떤 국가도 확장억제 약속과 미국의 힘, 동맹·파트너의 억제 능력을 의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과 같은 중요한 동맹과의 관계는 지역 안보와 안전에 중요하고, 북한·중국의 위협에 대한 중요한 억제력을 제공한다.”

소비자 94%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 의향

대부분의 소비자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월 소비자 6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는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살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95%는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사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답했다.

추가 부담 금액으로는 구매 가격의 10~25%(49.6%), 10% 이하(33.7%), 25~50%(8.5%) 등의 순으로 선택했다.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원이 지난해 발표한 품질 비교 정보(드럼세탁기, 보습크림 등 20개 품목)에 관해 묻자 응답자의 83.3%가 해당 정보가 유용하다고 답했다.

또 92.2%는 비교 정보가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5월에 최다  
행안부, 교통법규 준수 당부

행정안전부는 5월에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13일 당부했다.

최근 3년(2017~2019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는 모두 4만744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4만2993명(사망 657명, 부상 4만2336명)에 이른다.

특히 월별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는 5월이 74명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부상자도 6월에 이어 5월이 두 번째로 많다.

가해 운전 사고를 법규 위반 내용별로 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63.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중앙선 침범(8.6%), 신호위반(7.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3.4%) 순이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행안부는 강조했다.

자전거를 탈 때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다녀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한다. 이주형 기자



‘사파리월드 와일드 트램으로 동물과 더 가깝게’ 13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열린 ‘아듀 사파리 버스, 웰컴 사파리월드 와일드 트램’ 행사에서 사파리 버스(뒤쪽 차량)와 14일부터 사파리 버스 대신 맹수를 더 가까이 관람할 수 있게 관람창 전체가 통창으로 된 트램이 함께 운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미래 병역제도 논의... 국방 전문가 한자리에

국방대 제6차 RINSA 안보포럼

국방 분야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 마련됐다.

국방대학교는 13일 “제6차 린사(RINSA) 안보포럼을 국방대 서울캠퍼스에서 ‘병역자원감소와 모병제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린사 안보포럼은 국방부 안보정책 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및 저명인사를 초청, 안보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포럼에는 국방대 김종철 총장을 비롯한 교내 주요 직위자와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석기 책임연구위원, 한성대 고시성 국방과학대학원장, 김종대 전 국회의원 등 국내

전문가, 국방부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인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이상목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인력 문제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군 정예화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모병제 검토를 제안했다.

또한 성공적인 모병제 전환의 선행 과제로 인력충원제도 변화와 병영문화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원준 기자